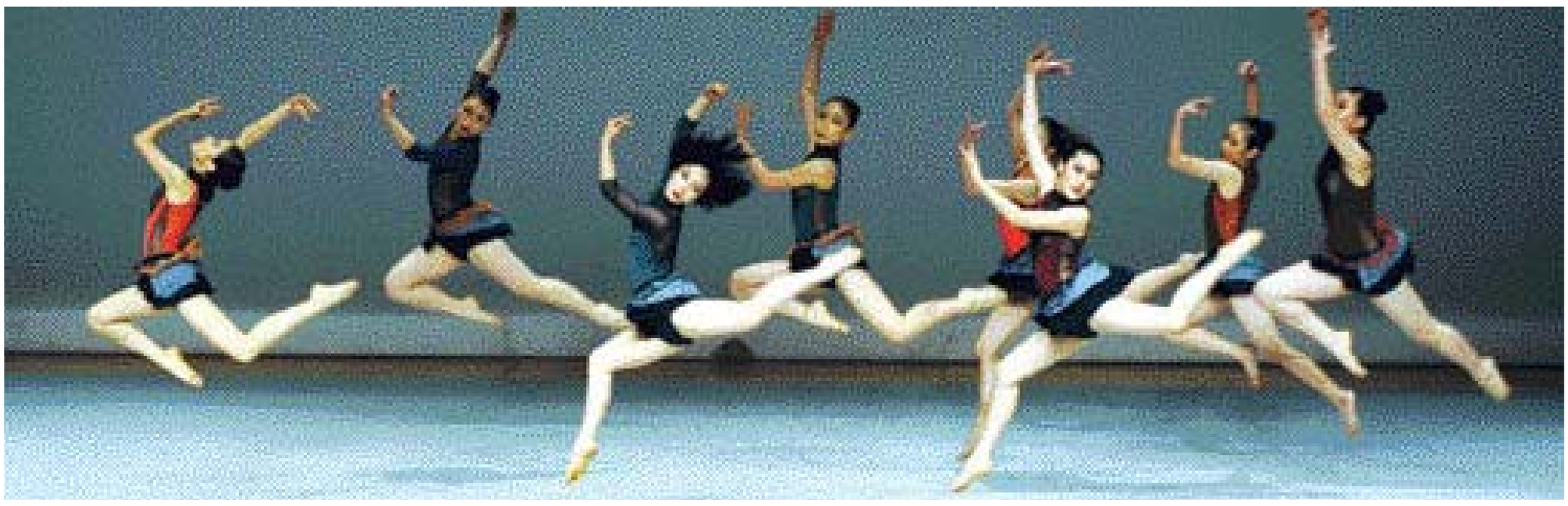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6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5월 15일 (음력 4월 21일) 금요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적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호남예술제 절정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광주일보사 주최 제 54회 호남예술제가 지난달 29일 개막 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무용 부문 경연참가팀 동아여중 군무진이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도약이 돋보이는 작품 '행렬'을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위직량기자 jrwi@

사업주체 논란 문화특구 장기표류

〈문화투자진흥지구〉

광주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단 "시와 공동추진" 엇갈려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 30억원 사장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맞물려 광주 문화산업의 기폭제가 될 투자진흥지구(문화특구)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광주시가 이 사업의 법적 주체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지난해 말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 30억원이 사장돼 있으며, 내년 사업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광주시와 추진단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국비 3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했다.

투자진흥지구 조성 사업은 광주시 금남로 1가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 부지 1만5천283㎡에 민간자본을 유치, 문화산업체를 입주시켜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당초 추진단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지자체와 공동재원(50 :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광주시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애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선뜻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법적 규정을 들어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8조'에는 "광주시장은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사업의 법적추진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 공동사업 추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추진단은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된 동부경찰서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추진단은 광주시와의 공동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2012년 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사업을 완료하려 했던 투자진흥지구 조성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진단은 추진주체와 관련, 법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진흥지구 사업은 결국 광주 문화수도를 위한 사업인데 광주시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산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사업이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전남 서남부 갯벌 '1등급 청정갯벌'

생물 300종 넘고 자연성·원시성 뛰어나

전남 서남부권 갯벌이 300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매우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안 하의도 갯벌은 수질 등급과 퇴적물 등급 등에서 오염도가 가장 낮은 1등급 청정갯벌로 조사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 의뢰해 신안 하의도, 지도~임수반도, 자은~암태도, 안좌도~팔금도, 비금도~도초도 등 신안군 갯벌 6곳을 대상으로 퇴적환경과 특성, 갯벌건강도와 사회경제적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갯벌의 평균 입도(알갱이 하나 하나의 평균 지름이나 대표 지름)가 6~7Ø 범위로 균질하고, 오염도가 낮아 자연성과 원시성이 매우 뛰어난 1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 건강성의 경우 갯벌습지의 해수·퇴적물은 중금속 함량이 낮고 공간적으로도 특정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축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식생물은 바다나 늪 밑바닥에 사는 동물인 저서동물이 총 204종 관찰됐고, 이중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칠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인 염생식물의 군락은 15곳이었으며, 현존 군락으로 갈애·칠면초·해홍나물 등은 28개 군락을 형성하는 등 생물종의 다양성도 높아 식물의 생육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는 80종으로 흰뺨검둥오리·참새·까치·제비·직박구리가 관찰됐으며, 이 중 물새류는 총 37종이었다. 특히 신안 하의도 갯벌에서는 법적 보호종 16종이 관찰됐으며,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검은머리 물떼새, 매를 포함해 총 6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Ⅰ급 조류는 매 1종이었고, 멸종위기 Ⅱ급 조류는 검은머리 물떼새, 잿빛 개구리 매 등 6종이었다.

이번 갯벌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2012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안습지 생태계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 중요 연안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별관점거 5월단체 재산 가압류

추진단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도청별관을 점거 농성 중인 5월단체와 간부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14일 아시아 문화중심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추진단이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2개 단체와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행위에 따른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을 13일 인용했다.

법원은 문화전당 공사가 중단된 지난 2월8일~24일까지 17일 동안 추진단이 시공업체에 지불해야할 공사지체 보상금 1억6천150만원에 상응하는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유족회, 부상자회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수거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농성을 지속함에 따라 지난 4월21일부터 현재까지 1일 50만원씩의 위반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국책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 부득이 가압류 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